



2021년 7월 9일 | Global Asset Research

시장의 온도

| 주식시황 이재선(3624) | 퀀트 RA 김한진(3865) | 투자정보 RA 김대욱(8532) | 주식전략 RA 신다운(7516)

다시 1.3%

★Review: KOSPI 3252.88pt (▼0.9%), KOSDAQ 1034.48pt (▼0.1%), 원/달러 1,145.50 (▲10.0원)

› KOSPI는 하락.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리오프닝 지역 우려에 외국인과 기관 중심 차익실현 매물 출회

★Preview: KOSPI 3,220~3,320pt

› 차주 국내 증시는 미 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에 따른 성장주 상대적 강세에 주목할 시점임. 금주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3% 중반까지 레벨을 낮춤. 이는 지난 2월 이후 최저 수준인데, 당시 10년물 금리가 1.3%를 돌파한 이후 성장주의 상대적 약세가 관찰되었음. 미국채 10년물 TIPS 금리 또한 지난 2월 수준인 -0.9%대까지 레벨을 낮춤

› 최근 금리 하향안정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함. 6월말에 발표된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합의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금주에는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가 동시에 부각되었음. 6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60.1p를 기록하며 5월 고점(64.0pt)대비 둔화된 양상을 보임

› 차주는 금리 레벨 방향성에 영향을 줄 6월 CPI 발표가 예정되어있음. 시장은 6월 CPI가 기저효과 약화 등의 요인으로 5월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예상: +4.7%YoY, 전월: +5.0%). 발표 이후 미 장기물 금리가 위험자산가격에 부담을 줄 수준까지 급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함. 2분기 물가지표에 일시적 영향력을 행사 하였던 대표적 요인인 중고차 가격은 6월 중순을 기점으로 둔화되고 있는 양상임. Manheim used vehicle index는 5월 203.0p에서 6월 203.6p 상승에 그침

› 금리 하향 안정화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주요국 리오프닝이 지체되고 있는 점은 성장주 중심 로테이션 장세를 뒷받침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현 수준 금리 레벨에서, 상반기 중 BM 대비 성과가 부진하였던 IT(HW/반도체)와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함

★금주 주목할만한 이벤트/경제지표/실적 (현지시간 기준)

› 13일(화): 미국 6월 CPI(예상: +4.7%YoY, 전월: +5.0%), 중국 6월 수출(예상: +32.1%YoY, 전월: +27.9%)

› 14일(수): 미국 6월 베이지북 공개, 크래프톤 수요예측

› 15일(목): 한국 금통위, 일본 BOJ 회의, OPEC 월간 보고서, 중국 2Q GDP(예상: +19.0% YoY, 전분기: +18.3%)

★주간 업종별 수익률: 삼성 SDI 등 2차전지 주 강세에 IT 가전 약진

↑ 강세: 소프트웨어(+1.8%), 통신(+0.6%), IT 가전(+0.6%)

↓ 약세: 자동차(-4.1%), 호텔(-2.8%), 은행(-2.7%)

내수				내수+수출				수출			
	주간	2 주간	4 주간		주간	2 주간	4 주간		주간	2 주간	4 주간
음식료	-2.0%	-1.0%	-2.0%	에너지	-1.4%	-5.7%	-3.2%	자동차	-4.1%	-4.5%	-1.2%
철강	-1.8%	-3.5%	-1.2%	건설	-0.7%	0.4%	1.5%	디스플레이	-0.9%	1.8%	2.6%
보험	-1.2%	1.0%	-0.8%	유太高	0.2%	0.4%	-1.3%	조선	-1.9%	-1.8%	-6.0%
은행	-2.7%	-4.2%	-7.3%	미디어	-1.9%	-2.3%	2.9%	운송	-0.1%	2.7%	-2.1%
증권	-1.6%	-1.7%	-5.0%	헬스케어	-0.6%	1.4%	6.7%	화학	0.4%	2.4%	3.1%
유통	-2.3%	-2.3%	-7.1%	화장품	-1.8%	-1.2%	0.7%	IT H/W	-0.5%	0.2%	1.0%
통신	0.6%	-2.5%	-4.0%	IT S/W	1.8%	2.9%	15.6%	반도체	-0.7%	-1.7%	-3.7%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1. 온도 Check

그림1. RSI 50p 대 머물며 중립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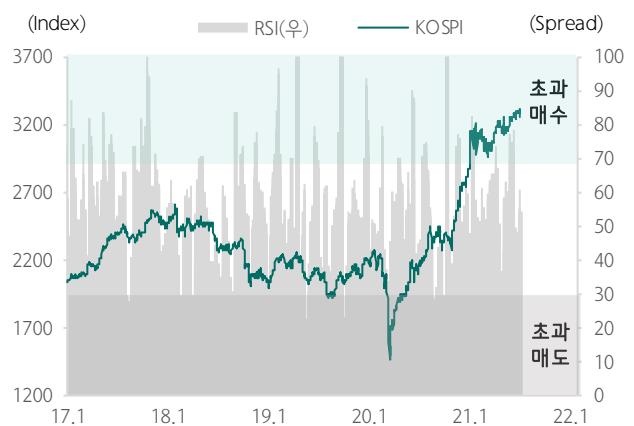


그림 2. 선물시장 풋옵션 비중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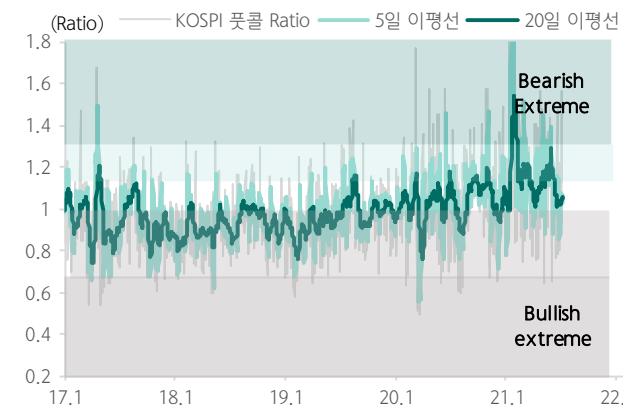


그림 3. 중시 내 상승 종목 수 6월말 기점으로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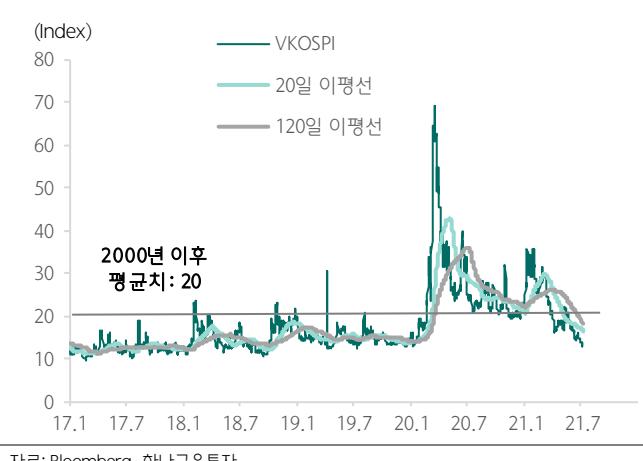
그림 4. 이평선과 격차 폭 감소하며 가격모멘텀 둔화



그림 5. KOSPI- 3년물 수익률 스프레드: 위험자산 선호 심리 둔화



그림 6. 변동성(VKOSPI) 역사적 평균치 하회



2. 주간 Issue

투자정보 RA 김대욱 02-3771-8532

Comment

- 지난주 선진국 종시는 경제지표 둔화에도 테이퍼링 우려 완화되며 상승했으나 신흥국 종시는 주 후반 델타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하락
- 증시 이벤트 프리뷰: USDA 세계 곡물수급 전망(7/12), 연준 베이지북(7/14), 한국 금통위(7/15), BOJ 회의(7/15~16), OPEC 원유시장 보고서(7/15)

그림 1-1. 미국의 경우 델타 변이 우려는 존재하지만, 추세적 확진자 증가는 미미

이번주 눈에 띠는 지표 1:

- 미국의 경우 델타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재유행은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는 흐름



그림 1-2. 미국채 10년물 & 기대인플레 120일 이평선 하회

이번주 눈에 띠는 지표 2:

- 시장 예상치보다 둔화된 6월 ISM 서비스업 발표 이후 미장기물 금리 1.3%대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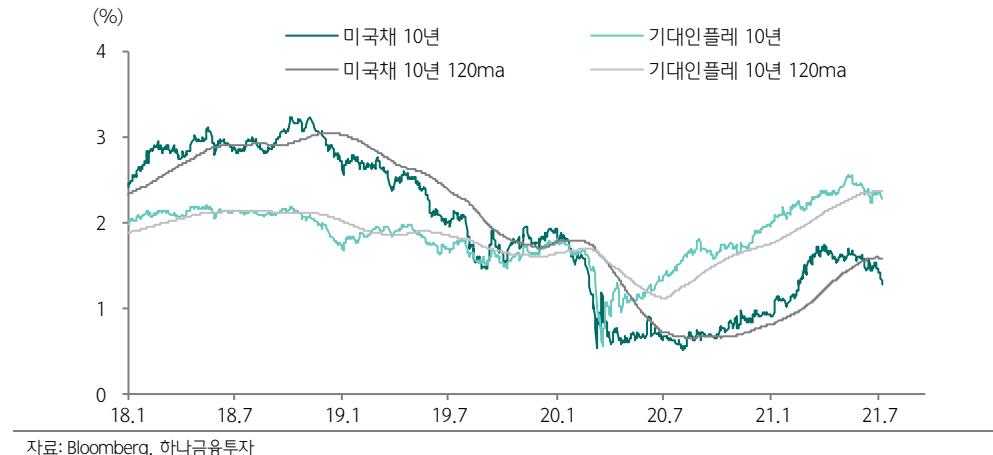


그림 1-3. WTI, 배럴당 75달러선 근접, 다만 비상업적 순매수 포지션은 감소 중

다음주 주목할만한 지표:

- OPEC+산유국들의 증산 합의 실패에 WTI 배럴당 75달러선에 근접
- 차주 OPEC+ 원유시장보고서 발간 예정. 21년도 원유 수요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에 주목



3. 선진국 증시

주식전략 RA 신다운 02-3771-7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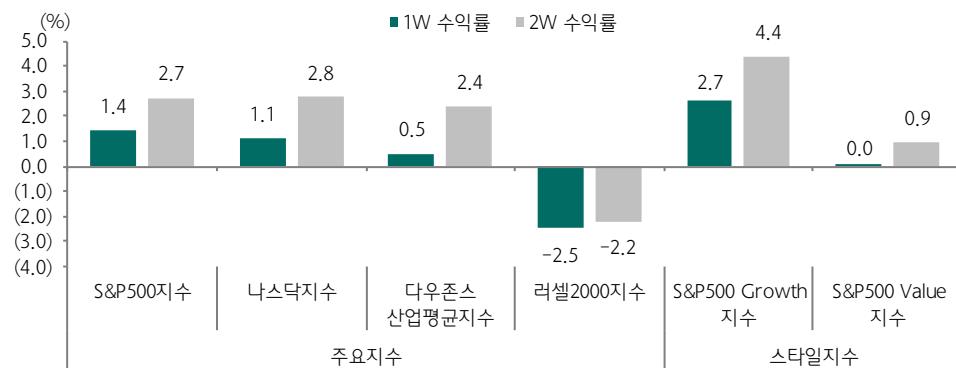
Comment

- ▶ 이번주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 FOMC 의사록을 통해 테이퍼링 경계 완화된 점이 상승재료로 작용. 연준 위원들은 정책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추가 진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테이퍼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
-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조기 테이퍼링 우려 완화에 1.32%로 마감하며 2021/2월 이후 최저치 기록

그림 2-1. 미국 주요 증시 및 업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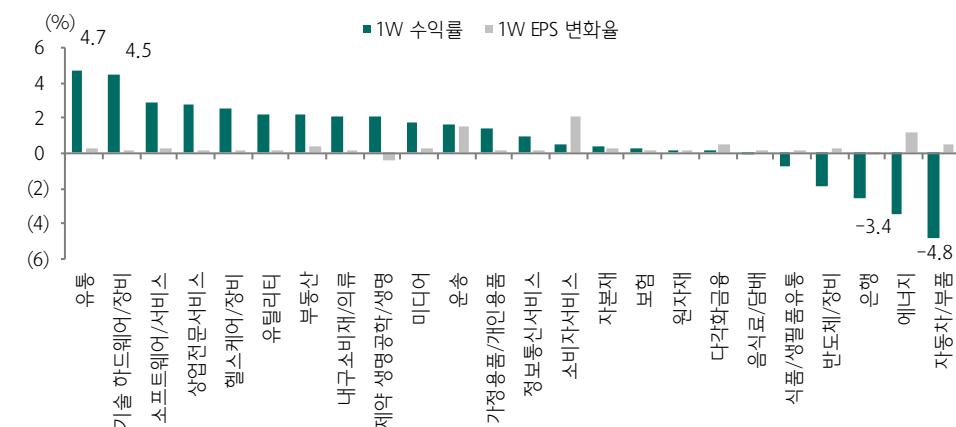
미국 증시 주간 Review:

- ↑ Dow (+0.5%)
- ↑ S&P500 (+1.4%)
- ↑ Nasdaq (+1.1%)
- ↓ 러셀2000 (-2.5%)
- ↑ S&P500 Growth (+2.7%)
- ↑ S&P500 Value (+0.0%)



SS&P500 주간 업종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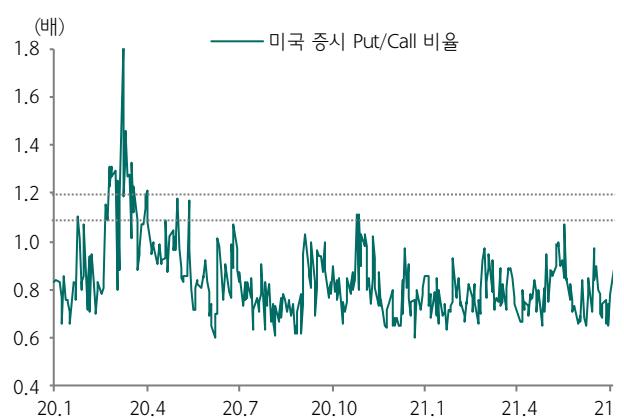
- ↑ 강세: 유통 (+4.7%)
 - ↓ 약세: 자동차/부품 (-4.8%)
- 주간 EPS 예상치 변화율
- ↑ 상향: 소비자서비스 (+2.1%)
 - ↓ 하향: 제약/생명 (-0.4%)



주: T-5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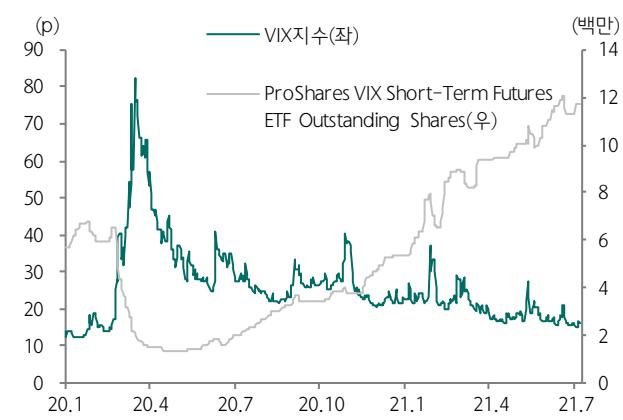
그림 2-2. Put/Call 비율: 전주 0.74배에서 0.89배로 상승



주: 일반적 고점은 1.1~1.2배 수준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2-3. VIX지수: 전주 대비 +0.4p 상승한 16.2p

주: VIX ETF 유동주식수가 증가(감소)하면 VIX 상승(하락)에 베팅하는 자금 증가로 해석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4. 글로벌 펀드플로우

주식전략 RA 신다운 02-3771-7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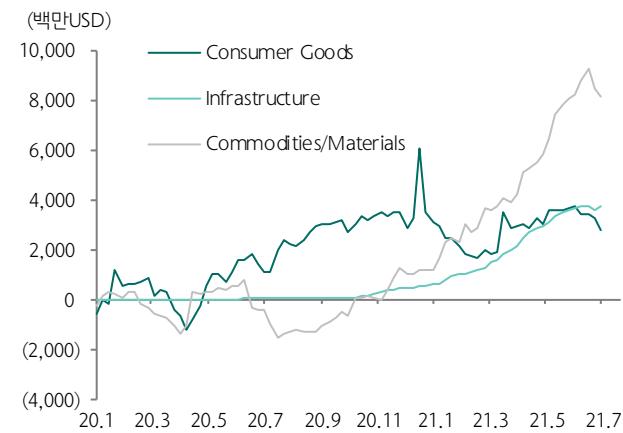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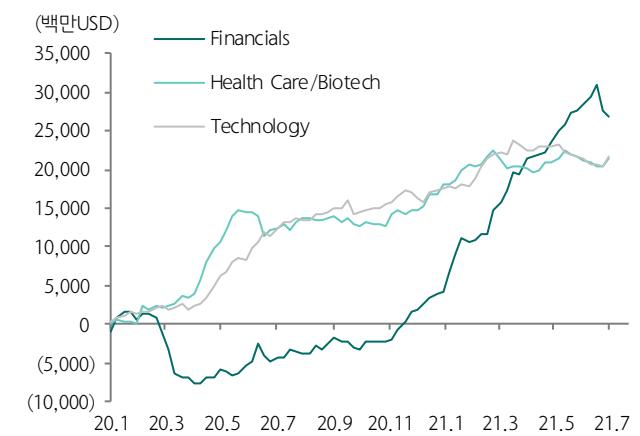
Comment

- 지난주 글로벌 자금 흐름은 선진국 주식형과 선진국 채권형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 전개. 선진국 주식형 펀드는 Global/선진국 채권형 펀드는 북미/신흥국 주식형 펀드와 신흥국 채권형 펀드는 GEM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되며 순유입 기록
- 지난주 미국 섹터 별 자금 유입이 가장 강한 섹터는 Technology (+\$1,179mn), 자금 유출이 가장 강한 섹터는 Financials (-\$864mn)

단위: 백만USD		지역	최근 1주	4주 평균	단위: 백만USD		지역	최근 1주	4주 평균
주식형	선진국	Global	8,673.2	7,183.1	채권형	선진국	Global	1,765.1	1,705.8
		NorthAm	-178.6	5,656.9			NorthAm	7,646.8	8,531.0
		W.Europe	-61.5	1,526.2			W.Europe	1,288.7	1,487.8
		Asia Pacific	690.7	352.4			Asia Pacific	56.1	46.2
		선진국 합	9,123.7	14,718.6			선진국 합	10,756.7	11,770.8
	신흥국	GEM	1,302.9	927.9		신흥국	GEM	1,791.2	477.0
		Asia ex-JP	-896.5	-1,286.1			Asia ex-JP	1,126.0	814.9
		EMEA	-8.8	4.2			EMEA	-283.1	-129.3
		LatAm	117.5	-86.8			LatAm	-160.7	-29.8
		신흥국 합	515.1	-440.8			신흥국 합	2,473.4	1,132.8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그림 3-1. 미국 섹터 별 주간 누적 펀드플로우 추이(1)



자료: EPFR, 하나금융투자

그림 3-2. 미국 섹터 별 주간 누적 펀드플로우 추이(2)

